

# 불교인 힘모아 협동조합 만든다

## 전북 불교시민사회 단체, 협동조합 설립 연대모임 결성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그에 따른 양극화 심화와 같은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운동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신행단체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했다.

지난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키기로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쟁보다는 협동, 재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협동조합의 근본정신과 신뢰와 소통을 성패의 열쇠로 보는 협동조합의 근간이야말로 초기불교의 공동체 정신에 부합하는 실천운동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 초기불교 공동체 정신 부합

협동조합과 관련해 구상 중에 있거나 관심이 있는 전북불교시민연대, 전북불교대학, 전주 우리는선우 등 단체들은 11월 30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연대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정보공유, 불교협동조합 설립지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유남희 전북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으로부터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흐름을 설명을 듣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습과 정보공유, 불교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을 위한 연대모임을 출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연대모임을 결성한 전북지역 신행단체들이 모여 설립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웃종교단체를 비롯해 많은 지역사회의 개인과 집단이 협동조합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교계는 아직 그 관심조차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단체마다 준비하고 있는 단위별 협동조합과는 별개로 전북지역 불교계가 한데 뭉치는 범불교적 불교소비협동조합이 제안됐다. 공동대표단이 별도로 준비팀을 구성해 검토한 후 논의를 이어나기로 했다.

협동조합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시장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경제적 약자인 농민이나 중·소상공업자, 일반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물자의 구매·생산·판매·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다. 협동조합 운동은 정치·경제적 약자가 상호협동과 단결로 경제적 지위 향상과 정치적 자존권을 획득해 가는 운동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주대 강제 채플수업 물의

개신교 재단에서 운영중인 전주대학교에서 개신교 종교행사인 채플을 강요하고 있어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주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아이디 onepiece (ansgr\*\*\*\*) 라는 네티즌은 11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와 네이버 판 게시판에 '전주대학교의 강제 개신교 종교수업 고발! 졸업하고 싶어요!!!' 라는 글을 올려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어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 '교과부 인권위 관계자에게 바랍니다-전주대학교의 개신교 강제수업 폐지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전주대 강제 채플수업 폐지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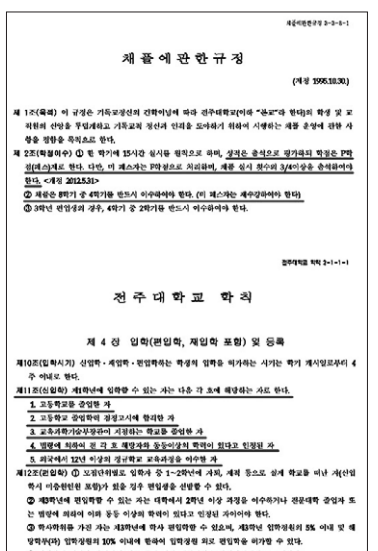
지난 5월 31일 개정된 전주대학교 채플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재학생은 한 학기에 15시간 씩 총 4학기 동안 채플을 들어야 한다. 채플 수

업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미달시 F학점을 받게 된다.

채플수업시간이 다른 강의와 겹치면 '신학' 과목 3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전주대의 이런 방침은 그동안 물의를 빚어왔다. 전주대학교 학칙 17조에는 '이단종교와 관련 있는 사람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도 줄 수 있고, 재벌 여부에 따라 제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학칙 외에도 '이단 종교 활동 규제규정'을 두고 통일교,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물몬교, 기독교 복음침례회 등 이단으로 규정된 종교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7일 현재 전주대를 고발한 이 글은 네이버 판에서는 조회수 9,300회 댓글 170개, 다음 아고라에서는 조회수 5,300회 댓글 480개를 기록하고 있다. 또 개신교 강제수업 중지



물의를 빚고 있는 채플 규정을 포함한 전주대 학칙

청원게시판에는 450여 명의 네티즌이 서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남 최초 백제 절터 발굴

## 강진 월남사지 백제시대 유물 발견...다수의 와당 출토



이곳에서 최초로 전형적인 연꽃문양을 담고 있는 다수의 지붕을 덮는 데 사용하는 건축자재인 백제와당(瓦當)의 출토가 큰 의미를 더한다.



전남 강진군과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5일 월남사지에서 '강진 월남사지 전각국사비 주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 강진 월남사지에서 다량의 백제시대 유물이 발견됐다. 전남 강진군과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5일 월남사지에서 '강진 월남사지 전각국사비 주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지금까지 고려시대 전각국사 해심(1178~1234년)이 창건했다고 알려졌던 월남사지에서 많은 백제기와들이 출토돼 이미 백제시대에 사람이 창건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백제시대 관련 유적이 거의 출토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많은 발굴과 연구가 진행 될 것 같다. 그중 전남에서는 최초로 전형적인 연꽃문양을 담고 있는 다수의 지붕을 덮는 데 사용하는 건축자재인 백제와당(瓦當)의 출토가 큰 의미를 더한다.

이밖에도 높이 23cm의 초대형 고려시대 금동 풍탁(風鐃)이 출토됐으며, 이런 대형 풍탁은 삼국시대 6점,

고려시대 3점 등 현재 9점 정도가 알려져 있다. 풍탁은 석탑이나 처마 끝에 사용되었던 장엄구로, 이번 월남사지 출토품은 이중 가장 큰 크고, 문양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돌로 만든 차(茶) 찻돌의 출토는 당시 사찰에서 가루차를 직접 만들어 마셨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차 찻돌이 절터에서 출토된 사례는 강화 선원사와 월남사지 뿐이 아니라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은 고려시대 때 고품질 청자를 생산했던 곳으로 이를 대변하듯 월남사지에서도 청자 의자와 화반, 향로, 의자, 약봉(藥棒), 도판(陶板) 등 다양한 용도의 특수 청자들이 출토됐다. 한편 고려후기 청자를 대표하는 간지명(干支銘) 청자 가운데 '기사' (己巳: 1329년)가 새겨진 대점점이 출토됐으며, '기사' 명 청자가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월남사지에서는 백제시대 뿐만 아니라 중창 시기인 고려시대의 기와들도 다양하게 출토됐다. 발굴 유물의 80%를 차지하는 고려시대 유물 중에서 대동항쟁 유적으로 유명한 진도 용장성에서 출토된 막새들과 비슷한 문양의 와당들도 확인되고 있어 월남사가 13세기에 중창됐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지난 2012년 8월 27일부터 4개월에 걸친 조사로 건물지로서 추정되는 지역의 일부만을 실시했다. 한편 이번 발굴에서 다량의 백제유적이 나오면서 그동안 백제와 후백제, 고려 중기 등 다양하게 검토되었던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보물 제298호)의 건립 시기 또한 재검토 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전주 자연음식문화원 개소



건강한 먹거리 운동을 위해 자연음식문화원이 개소식과 함께 출범했다.

생명평화의 정신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운동을 전개해 나갈 자연음식문화원(이사장 곽복희)이 12월 6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출범했다.

자연음식문화원은 건강한 식생활

을 위한 강좌를 통해 음식의 고장 전주의 명성에 맞게 사찰음식을 발굴하고 아이들을 위한 친한경급식 운동등과 식생활개선활동에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 서노송동에 약 130㎡의 공간에 실습 조리대 36대를 마련했다. 문화원은 △대학생 자취방 채식요리경연대회 및 외국인 유학생 초청 대중공양 △야생마라 장자연건강음식 일요파티 △생명평화대중공양단(음식 자원봉사단)운영 △전북지역 자연(사찰)음식 연구조사 작업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기업 착한식당 '생명평화 머그컵'을 창업해 소박하고 저렴한 식당의 모범적 운영으로 사찰음식의 고유정신을 알리고 대중화할 계획이다.

'생명평화 머그컵'은 채식이 기본으로 지역농산물(로컬푸드)을 이용한 저렴한 소박한 자연음식전문식당이다.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자비신행회, 자비연탄 기부행사

## 저소득 70가구에 1만 4000여장 전달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불교계 나눔의 행사가 개최된다.

(사)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오는 12월 14일 지역 저소득 어르신세대 및 청소년 가장 70여 세대에 연탄을 전달하는 기부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전달하는 연탄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지역의 사찰(문빈정사, 증심사, 영광사, 연화사 등)과 불교단체가 연합하여 전체 1000만원의 후

원금으로 70세대에 14,000장의 자비연탄을 전달한다.

행사를 준비하는 자비신행회 배수정 팀장은 "올 해에는 가장 추운 겨울이 올 것이라 예보가 되어있지만, 정작 어려운 이웃들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들에게는 작은 온정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희망을 다가갈 수 있다"고 행사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오는 24일 화



2011년 저소득가구에 연탄을 지원하고 있는 자비신행회.

순 전남대학교 소아암 병동에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 선물전달' 행사를 개최한다. 올 해로 2회째 맞이하는 이 행사는 40여명의 아이들에게 사전에 받고 싶은 선물을 '소원지'를 통해 전달받아, 24일 희망의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 자비의 미안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들 출가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